

그 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니 삼이 하나씩 하나씩 지평선에 솟아올랐다.

자크 데리다 (안 뒤푸르 망렐) 1997년 작 < 환대에 대하여 > 동문선 PP 25-26
내가 보기엔 세미나 내내 인간의 문제인 것으로서의 "어디?"라는 물음의 계시에
귀착한다. 이 물음은 스피크스가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 곧 견고
있는 한 인간에게 건넨 물음이라는 점이다.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 이외엔
고유한 장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진 인간에게,
그태도 자기 그림자를 앞장 세워 가고 있는 인간에게. "어디?"라는 물음은
나이가 없고 타동사적 이다. 이 물음은 장소에 대한, 거처에 대한, 무-장소에 대한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서 제기하며, 또한 사유를 대상에 대한 그 내포관계에서
그 기능 자체에 의해 배척한다. 진리라고는 슬래잡기 노래 가운데 뛰어가는 슬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진리를 발견케 하는 것은 진리의 움직임이고, 진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흔적이다.

구나 작가가 필사한 문장들
출처: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김경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정모 작가와의 대화
출처: 아트플랫폼 제공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Berlin, street of art 2015>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Good-Bye>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LED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I was here>이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박문희 작가와의 대화
출처: 아트플랫폼 제공

000 000 0000 000 00, 000 000 0000 000 00. 000 00 0000 00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 00
 0 00. 00 00 0000 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00 00, 00 000
 0 000 000 000 000 000000 00. 00 00 000 00000 000 0 0 000 000 000
 00 00. 00 000000 000 000000 000 000 000 0 00 000. 000 000 0 000
 0 0000 000 00000 000 00000 000 '00' 00000 000 00 00000 0000 000? 0
 00 000 00 00.



모 시라(Mo Sirra),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
사진출처: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모 시라(Mo Sirra)는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램프를 배치하여, '1000개의 램프는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과잉 소비와 환경 문제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작품은 2018년 인천문화재단에서 개최된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6월 6일까지 계속되었다.

*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인천문화재단에서 전시된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이 전시회를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3.0 버전입니다.
(도움, 문의 <http://expert4you.blog.me/>)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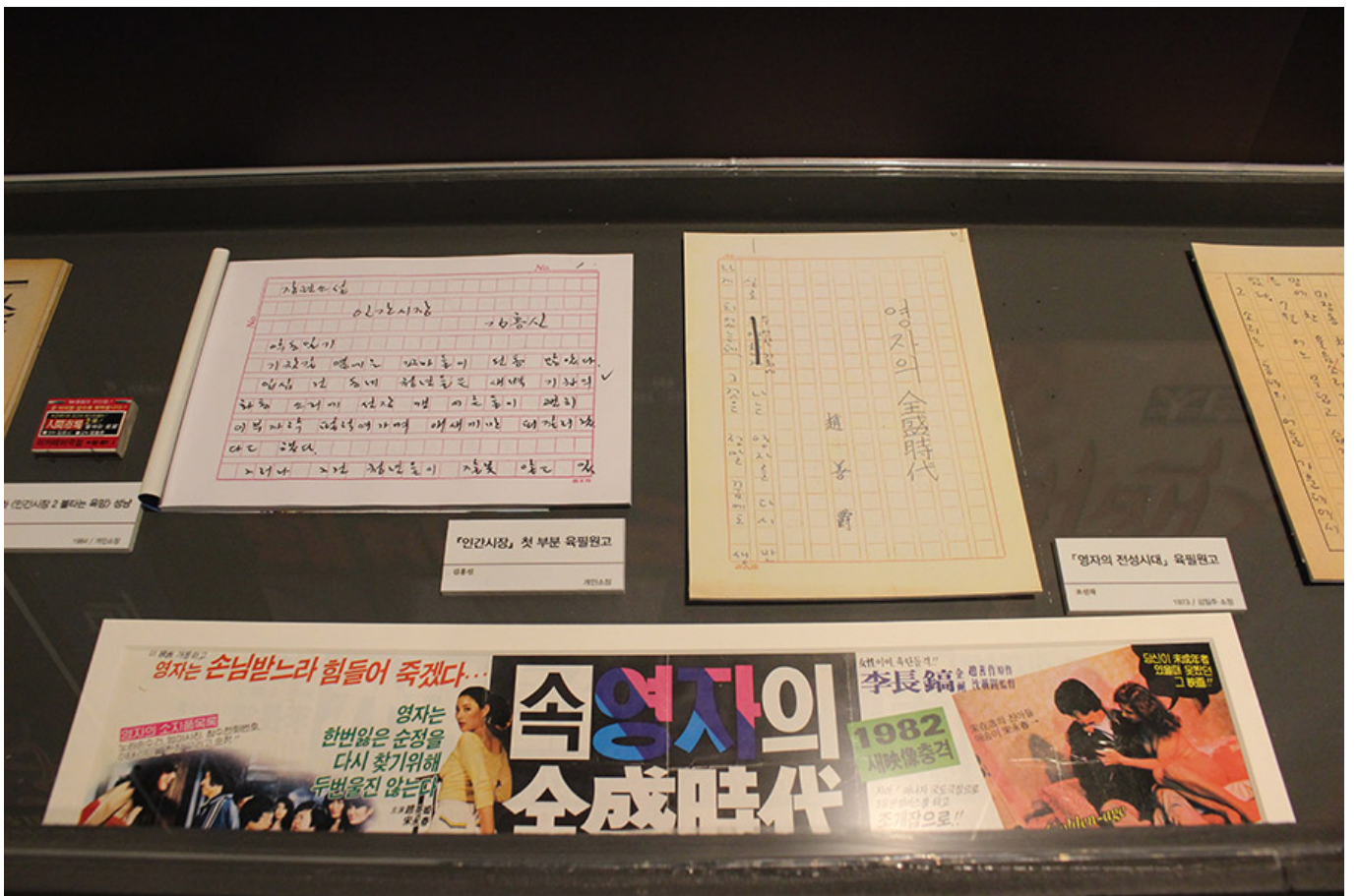
지난 4월까지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근현대 베스트셀러 소설들만을 모아 전시한 특별전 '소설에 울고 웃다'가 진행됐다.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 □□□□ □ □□□□ □□□□ □□ □□□□ □□□□□□□□□□ □□□□. □□□□ 2017□ 9□□□ □ □ 4□□□ □□□□□□□□ □□□□□□□□ □□□ □□□ ‘□□□□ □□ □□’□ □□□□□. □□ □□□ □□□ □ □□□ □□ □□ □□□ □□□ □□□ □□□ □□□□ □□□□ □□□□.

□□□□ □□□□□□□□ 1980□□□□ □□□□□ □□□ □□□ □□ 24□□ ‘□□□□□□’ □□□ □□□ □□□ □□□ □□□ □□□ □□□ □□□ □□□□.









아날로그 문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들의 쓰던 애장품도 함께 전시됐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량

이 글은 2010년 10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0년 10월 10일 60일 전의 글입니다. '이 글'은 2010년 10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0년 10월 10일 60일 전의 글입니다. '이 글'은 2010년 10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0년 10월 10일 60일 전의 글입니다.

이 글은 2010년 10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0년 10월 10일 60일 전의 글입니다. '이 글'은 2010년 10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0년 10월 10일 60일 전의 글입니다.

0.00 / 000000 3.0 0000 000
marinboy58@naver.com

0000 00 0000 0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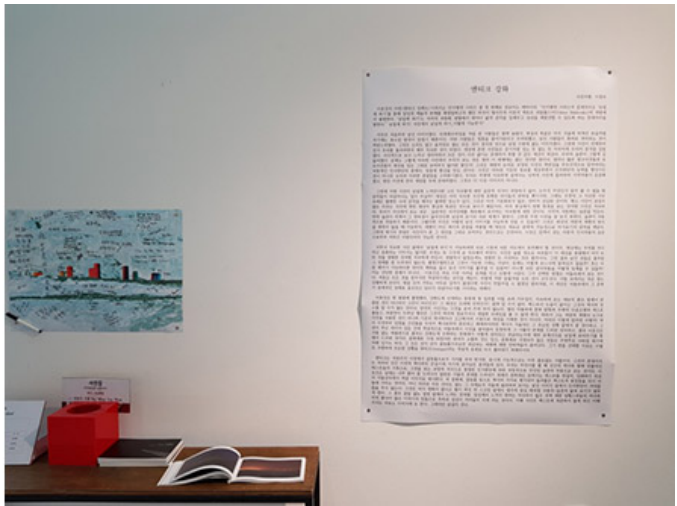
000 000 00 000 <0000 0000>

000000 E1 00 0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 00 00 0000 00 0000. 00 00000 0000 0000 00 00000000. 00 000000 000000 00 000000 0 00 00 00000000 000000 0000 000000. 0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0 00 00 00 0000 00000000 0000 00 0 0000, 000000 00 00 0000 0000 00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000000.

0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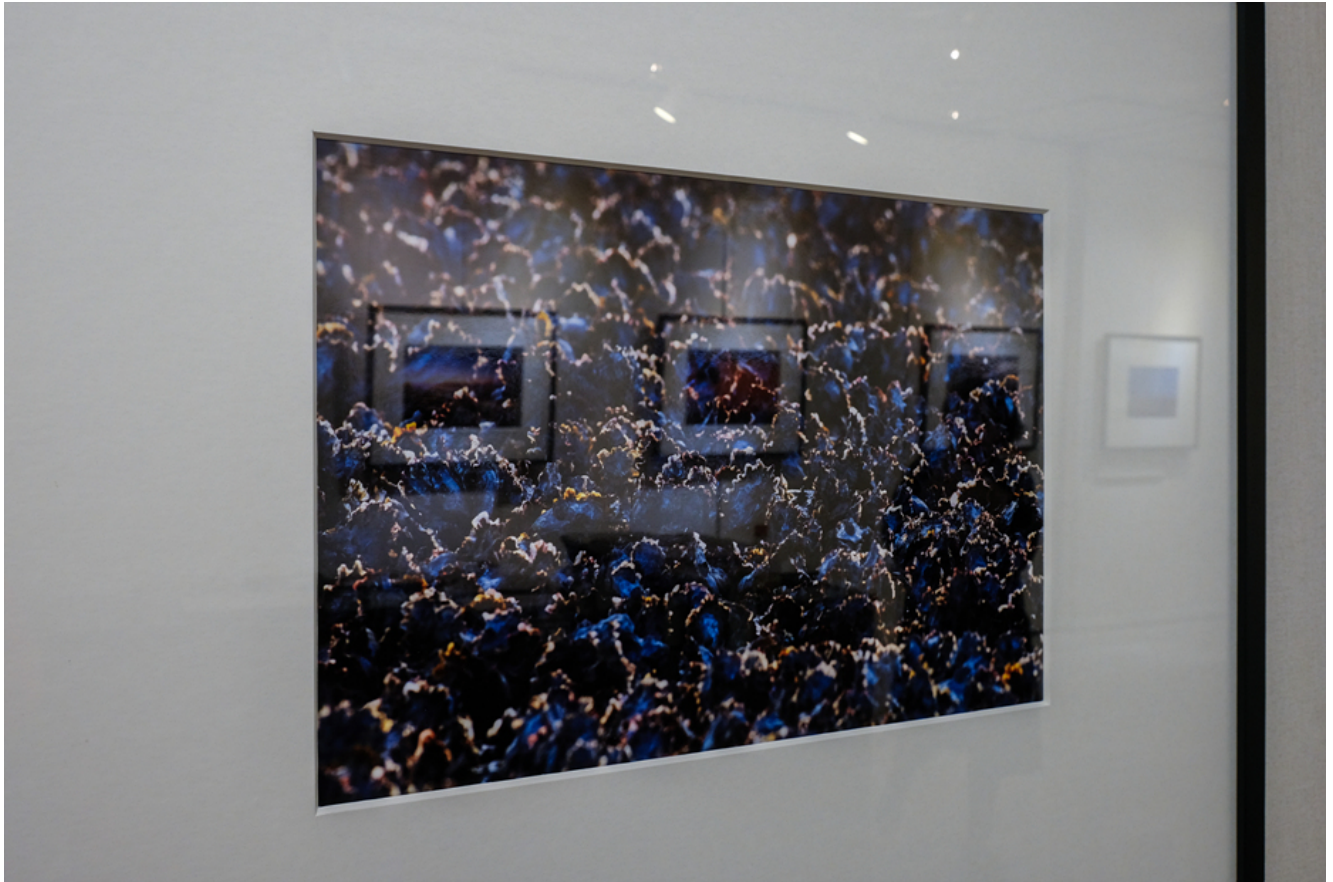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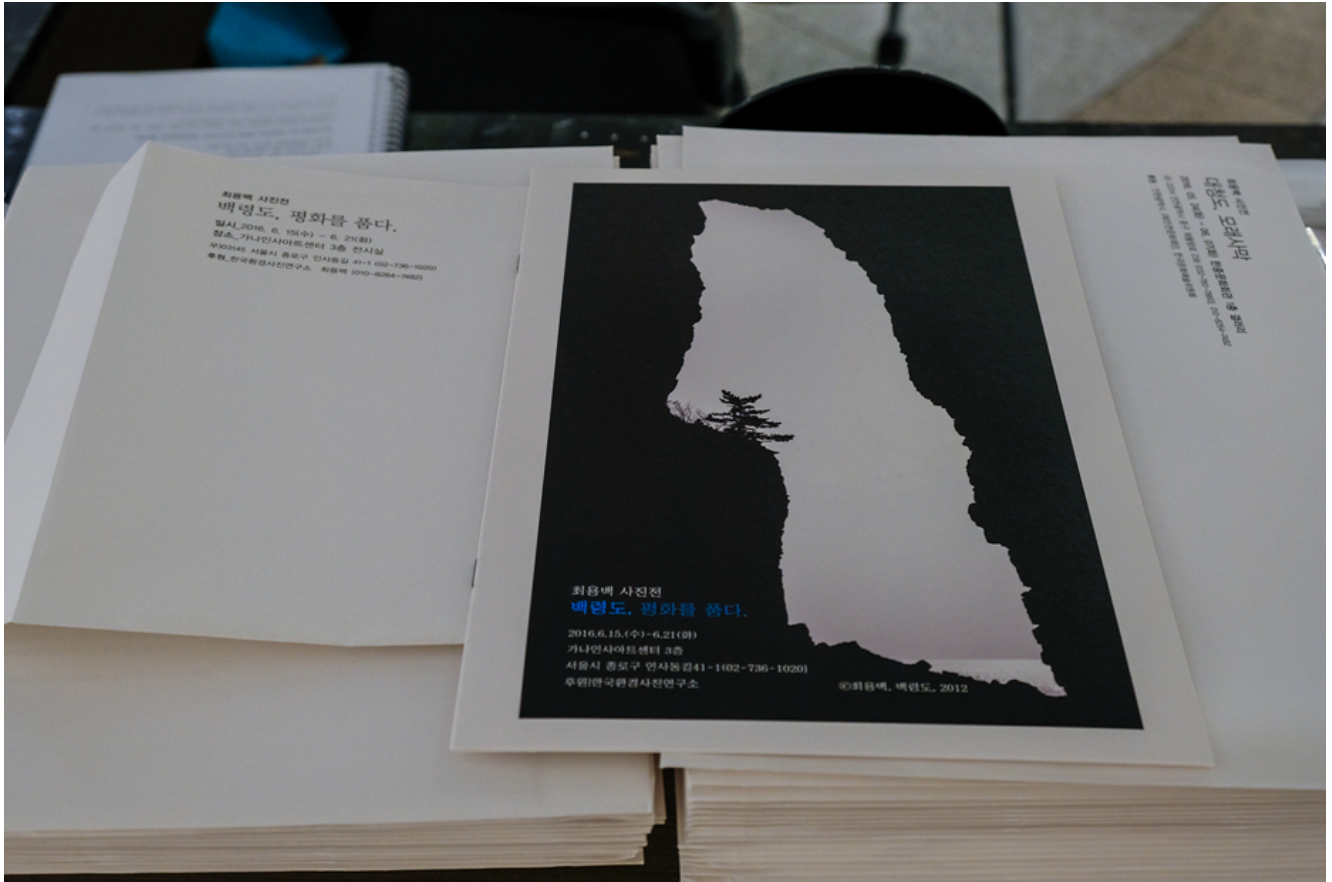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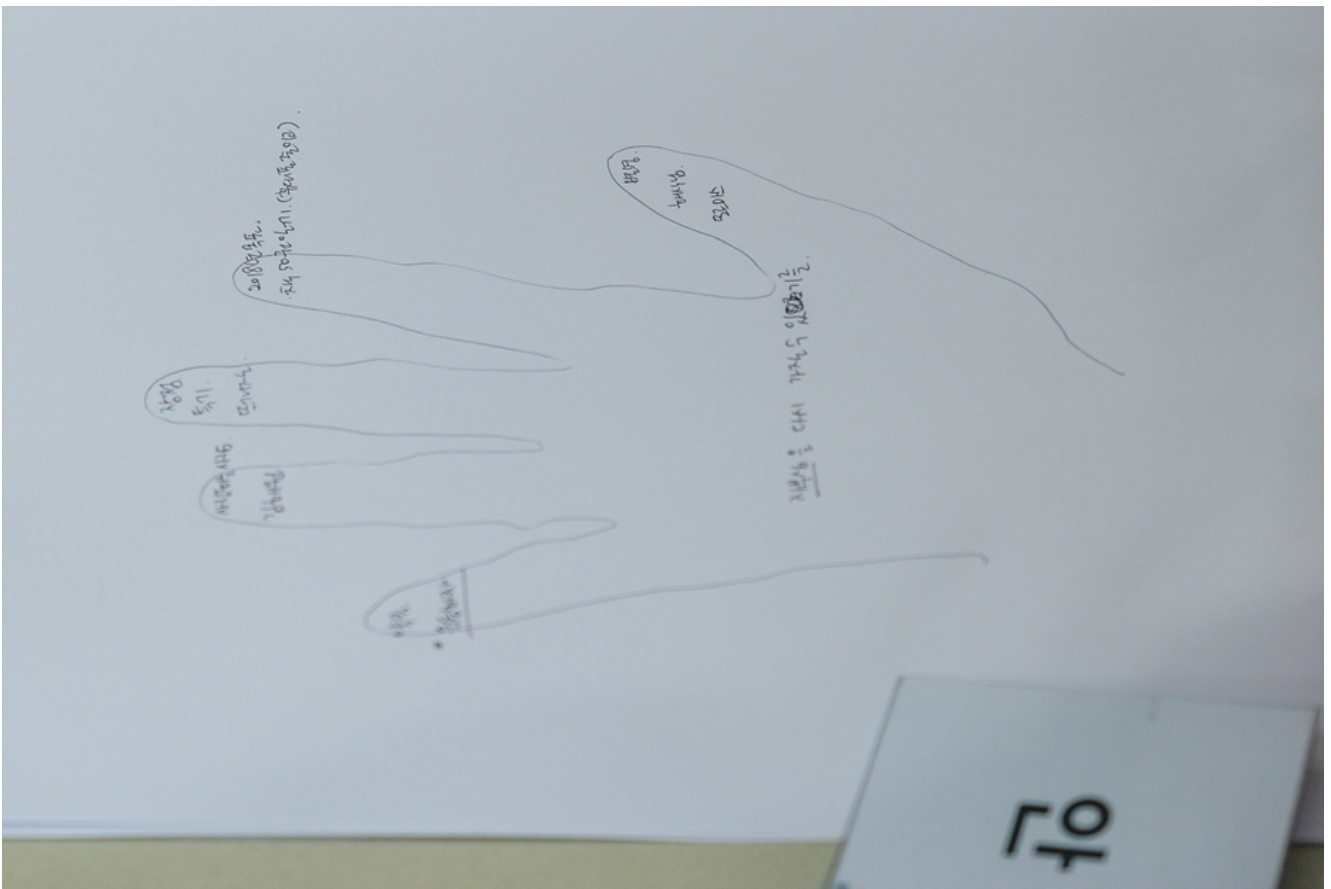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04.14(0) -04.26(0)
00: 00000 000(000000 00 00000238)

인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 04.13(0), 0060~90
00: 000000 000000 H0 20

00/00: 000000 00000

00: 0000003.0 000

‘0000000000’ 0000 <0>

00000 0000 000 00 000 ‘000000000’
‘000000000’의 28번째 0000 ‘0’



지난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잡'이 열렸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0 40 70 00000000 C0 000000 0000 00 00 000 0000 00 00. 00 4000 000
'000000000'의 000000 00 00 00000 00 00000 00000 0 00 000.
00000 28000 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 000000
0000. 00 00 00000 0000 000000 0000000 00 00000000 00000000 0000 0000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인형극 사이사이에 타악패와 춤패, 노래패의 공연이 채워지면서 다채로운 재미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 □□□□□ □□. □□□□ □□□ □□□□ □□□□ □□□□. 2□□□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문의/ 후원문의 3.0 후원금 문의
marinboy58@naver.com

<공공 문화 공간> 공공문화공간 공공 문화 공간

공공문화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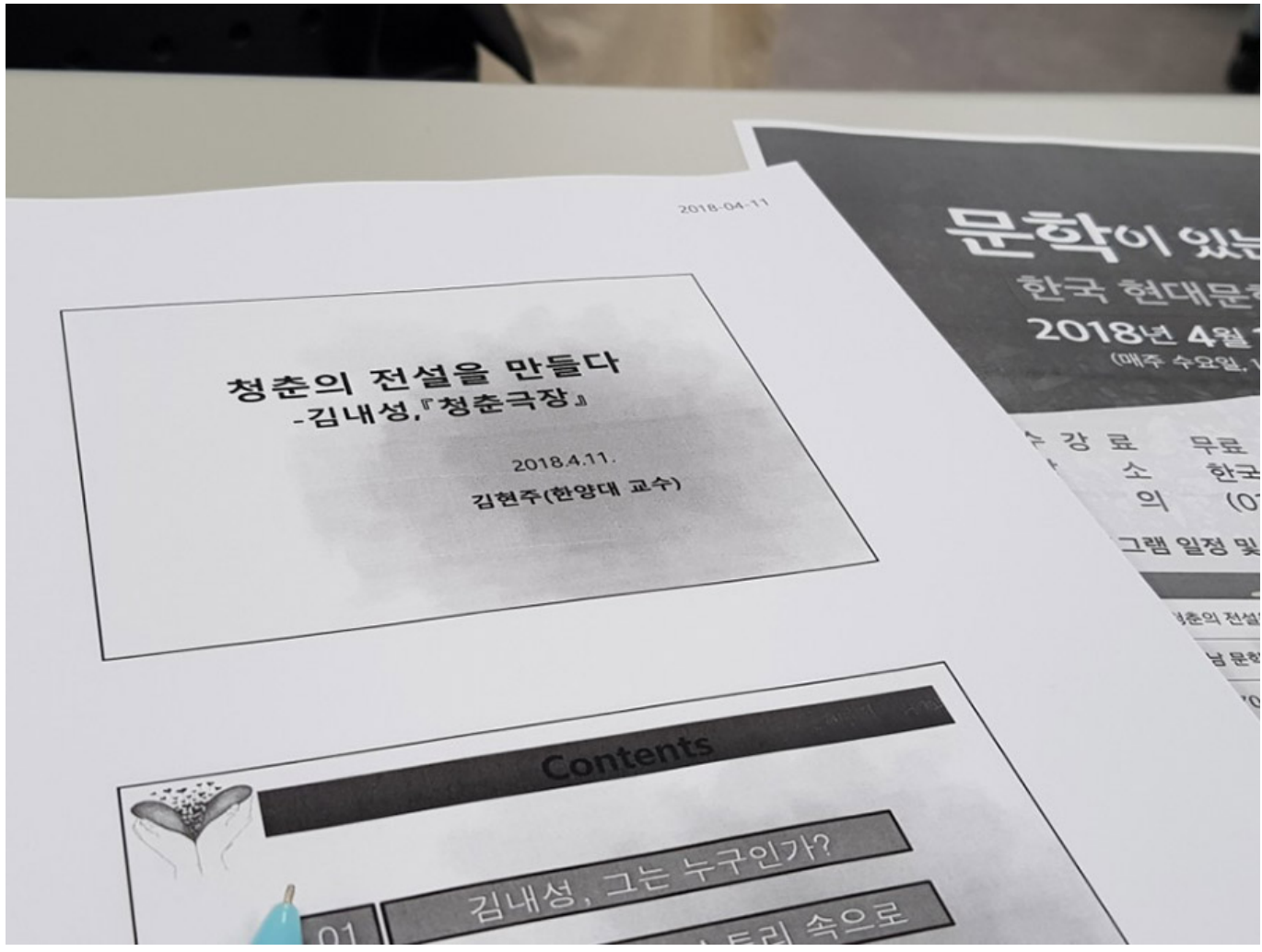
공공 문화?



'공공 문화 공간 - 공공 문화 공간'은 공공 문화 공간은 6월 30일까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을 8월 31일까지 공공 문화 공간을. 공공 문화 공간. 공공 문화 공간

.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한국현대문학관 2층 강연실에서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김내성,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한국현대문학관 2층 강연실에서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김내성,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 김내성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이 강연은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김내성,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한국현대문학관 2층 강연실에서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김내성,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 김내성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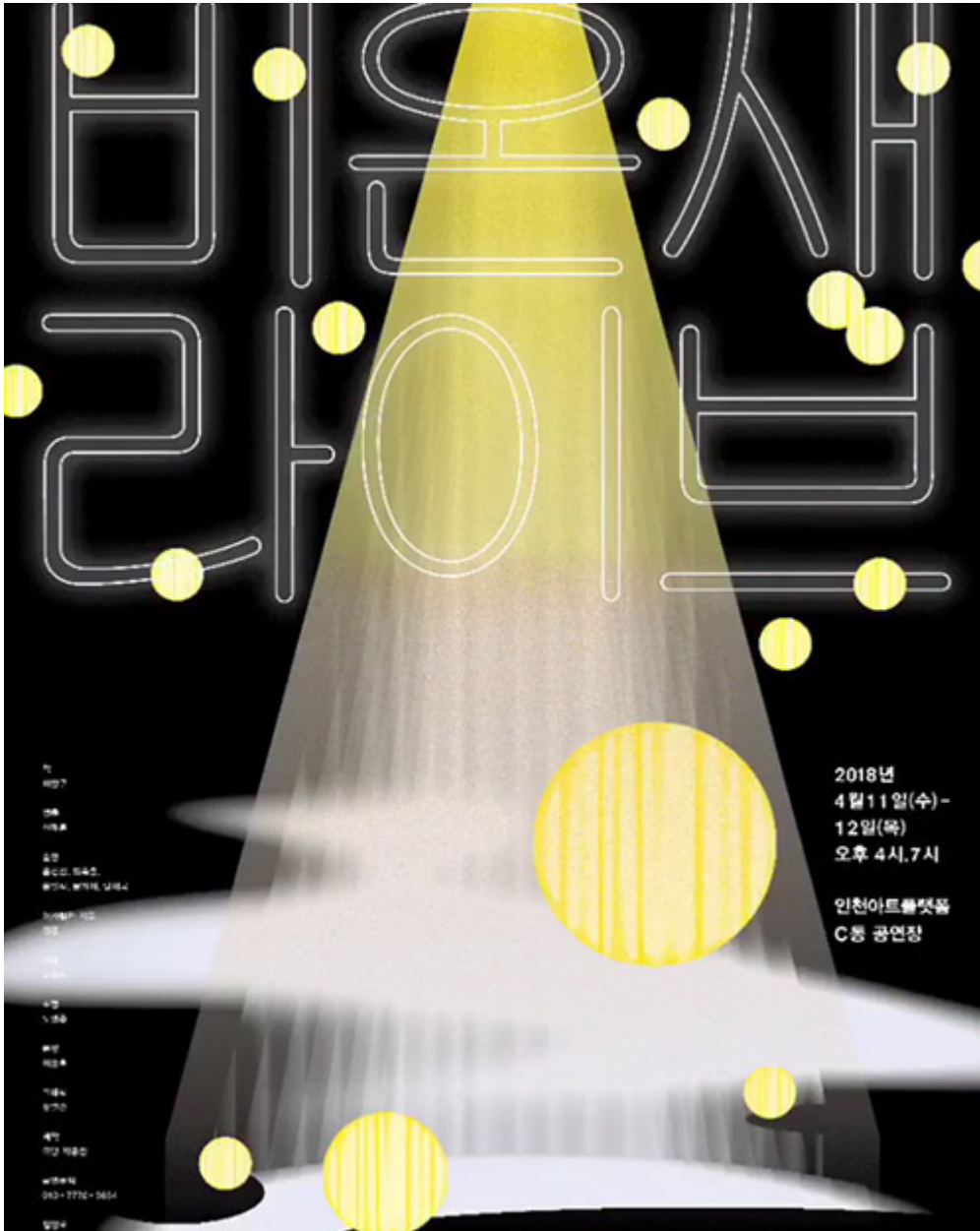
사진 출처: 극단 작은 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 사진은 극단 작은 방의 공연 중 한 장면입니다. 두 명의 배우가 검은색 계단 위에서, 한 배우는 selfie 스틱을 들고 다른 배우를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배우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며, 배경에는 여러 개의 나무 의자가 보입니다. 이 장면은 극단 작은 방의 공연 중 한 장면으로, 배우들의 연기력과 연출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문화재단 비온새라이브 포스터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

□ □□□

□□ □□ □□□

□□ □□□□□□ □□□ C

□□ 2017.4.11(□) ~ 12(□) □□ 4□, 7□

□. □□/

□□□ □□□□□□3.0 □□□□

2018 □□□□□ □□□□□□□ □□□□□

2018 □□□□□ □□□□□□
@□□□□□ □□□□(2018/04/07, 05/05, 06/09, 08/25)

□□□□□□3.0 □□□□ □□□